

완도군, 장보고 대사의 인연으로 일본 야마가타시와 맞손

수산, 문화, 경제 분야 협력 확대해 나가기로

완도군은 장보고 대사와 일본 고승 엔닌이 맺은 1,200년 전 인연으로 일본 야마가타시와 우호 증진 및 협력을 위해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일본 야마가타시와 도교시를 방문했다.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에는 '장보고가 일본으로 와 엔닌을 배에 태우고 당에 돌아갔다'라는 구절이 있을 정도로 장보고 대사의 큰 도움을 받았으며, 장보고 대사와 엔닌의 인연은 특별하다.

엔닌이 은인이라 여기는 장보고 대사는 828년 완도에서 청해진을 설치하고 일본과 중국, 동아시아의 해상 무역을 주도했다.

군은 이번 일본 방문으로 한일 역사적 교류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지역 간 수산, 문화, 경제 분야 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아울러 '2026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박람회 홍보 및 수산물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자 신우철 완

도군수와 김양훈 군의회 의장, 해조류박람회 추진단, 시장개척팀 등이 동행했다.

신 군수와 일행은 첫날 미야기현 마츠시마 수산 시장을 방문해 수산물 유통 구조와 소비 트렌드를 살폈으며, 13일에는 미야기현 수산 기술 종합센터를 찾아 수산 연구·기술 현황을 확인했다.

이어 야마가타시를 방문해 시장, 의장, 상공회의소 연합회장과 면담을 갖고 청해진 설치 1,200주년을 기념하는 한일 우정 상징물 제작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완도 수산물 일본 시장 진출과 2026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사토 다카히로 야마가타 시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야노 히데야 상공회의소 연합회장은 "김, 전복 등 완도 수산물이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먹을 수 있다면 좋



겠다"면서 완도 수산물 유통·판매에 관심을 나타냈다.

14일에는 엔닌이 창건한 릿사쿠지(야마테라)를 찾아 장보고 대사의 해상 네트워크가 동아시아 불교와 문화 교류에 기여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장보고-엔닌 우호 상징 답을 건립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15일에는 도교를 방문해 도요스 시장, 일본 전역에 160개 이상의 점포를 보유한

이온몰 본사, TWJ 토요미 센터 및 활어 센터, AT 도교지사 등을 견학하고 수산물 유통·물류 시스템을 살펴봤다.

아울러 5월 개최될 '2026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의 수출상담회에 일본 바이어 초청과 수산물 수출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동경한국상공회의소의 신년 하례회에도 참석해 한일 경제인들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완도/양선우 기자



100세까지 건강한 고령, '백세청춘 운동교실' 큰 호응 신체활동부터 영양·비만 관리까지, 통합 건강관리 제공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관내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백세청춘 운동교실'이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백세청춘 운동교실은 총 60개소에서 마을별 10회씩 진행되며, 주민들의 신체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각 읍·면의 운동 환경과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을을 선정했다.

프로그램은 지난 1월 14일 과역면 석촌마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일에는 두원면 금산마을과 예화마을, 대서면 평촌마을, 동강면 죽림마을 등 4개 마을에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건강 체조, 요가, 라인댄스 등 신체활동 ▲영양·비만 관리 교육 ▲금연·절주 등 통합 건강교육으로 구성됐으며, 전문 강사와 보건소 직원이 함께 참여해 프로그램의 전

문성과 효과를 높이고 있다.

또한, 참여자의 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건강 노쇠 설문지와 혈압·혈당 등 기초검진을 프로그램 전후로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신체활동 제공과 향후 프로그램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백세청춘 운동교실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세청춘 운동교실은 관내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중심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운영되며, 상반기 32개소, 하반기 28개소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고흥/박도일 기자

보성군은 청년층의 취업 기회 확대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 대책의 하나로 오는 1월 30일까지 상반기 직접 일자리사업(공공 일자리 사업,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보성군은 공공 일자리 사업으로 30개 사업 36명,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5개 사업 12명을 선발해 배치할 계획이다.

보성군, 상반기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전년 대비 청년 일자리 다변화로 청년층 일 경험 기회 대폭 확대

주요 사업으로는 보성 열선루 이순신 역사문화공원, 메타세콰이어길, 중수문 생태공원 등 관광지 정비와 보성향교, 벌교 생태공원 등 문화 생활 공간 정비, 그리고 지역 내 환경정비 등이 포함된다.

특히, 올해는 보성군 청년센터와 BS 청춘마켓, 제암산자연휴양림에 더해 방진관

에 청년 코디네이터를 모집하고, 벌교버스터미널 청년도우미, 보건소 청년 동행 매니저, 한국차박물관 청년 안내인(도슨트)을 모집하는 등 채용 규모에서 전년 대비 75% 증가한 것이 큰 특징이다.

참여자 자격은 사업 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보성군민으로, 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이다. 다만, 18세 ~ 49세 청년을 선발하는 사업에는 소득 및 재산과 관계없이 공고일(1월 19일) 기준 보성군에 거주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소득, 재산, 기타 자격요건 등을 종합 평가해 2월 20일 전후로 선발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보성/김운기 기자

순천시, 온누리 공영자전거 타며 봉사활동 실적도 쌓는다

이달 30일까지 온누리 공영자전거 인센티브 참여자 모집

순천시는 공영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2026년 1분기 온누리 공영자전거 인센티브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온누리자전거 인센티브 사업은 시민이 공영자전거를 하루 30분 이상 이용하면서 대여소에 쓰러져 있는 자전거를 바로 세우고 보관된 자전거 청소 등 간단한 현장 관리 활동에 참여하면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받는 제도이다.

참여자는 하루 최대 30분의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받게 되며, 해당 실적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1365자원봉사 포털에 자동으로 등록된다.

이번 1분기 참여자 모집은 1월 19일부터 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2월부터 3

월까지 2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만 15세 이상 공영자전거 이용이 가능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QR코드(<https://naver.me/F6ngGot>)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지자체 최초로 시행된 시민참여형 공영자전거 인센티브 사업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1,182명이 참여해 2,356시간의 봉사활동 실적을 기록했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을 통한 탄소 중립 실천과 시민참여형 관리체계를 구현하는 실천형 정책"이라며 "자전거를 시작으로 대중교통과 보행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친환경 교통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정성인 기자

구례군,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1인당 30만 원 구례사랑상품권으로 지급

구례군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군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 조성을 위해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군민 1인당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급 기준일(2025년 12월 31일 18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구례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거주자 또는 체류자이다.

기본소득 신청은 오는 2월 2일부터 5월 29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신청 즉시 대상자 확인 절차를 거쳐 구례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

이다. 지급된 상품권은 구례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과 마트, 식당은 물론 관내 하나로 마트 등에서 2026년 5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놓여진 소멸 위기와 지역 간 성장 불균형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구례/한정호 기자

화순군, 2025년생 출생기본소득 신청하세요

1세부터 18세까지 월 20만원 지원... 거주 요건 대폭 완화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0일 출산 장려와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출생기본소득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을 2026년부터 대폭 완화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2025년부터 도입됐으며, 2024년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아동 1인이 받을 수 있는 총지원 금액은 4,320만 원에 달한다.

특히 2026년부터는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거주 요건(유지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출생아와 부모 모두 출생신고일 이후 전남 내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출생아와 보호자 중 1명만 전남 내 주민등록을 유지하면 된다. 아울러 신청 시점에 출생아와 보호자 2

인 모두 전남 또는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출생기본소득은 생후 11개월부터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소급 지급은 불가하다.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사업 명칭을 기존 '출생기본수당'에서 '출생기본소득'으로 변경해 지원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했다"라며, "거주 요건 완화를 통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화순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화순/김종환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